



대한산업안전협회
이 홍지 / 회장

존경하는 안전관계자 여러분!

새천년(New Millennium), 21C 첫해 2000년
희망찬 경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천년의 첫해 아침을 맞이하는 안전인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달성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 세기동안에는 특히, 우리 나라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최근들어 경제적 최대의 위기이자 시련을 맞았습니다. 이와함께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안전의식의 결여로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안전은 도외시되고 안전인의 설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로서도 대내외적인 환경에 커다란 변화의 수레바퀴 속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게 되는 쉽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가 지향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근로자, 경영자, 정부관계자 및 모든 안전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협회가 지난 35년간 산업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예방운동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제반

최고의 안전기술력과 최상의 서비스로 새천년 새협회를 정립하면서

안전기술의 모든 역량과 경험을 살려 매월 발간되는 안전 전문 기술지의인 「안전기술」이 안전관계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사랑으로 내실있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관계자 여러분!

21C 새천년은 무한경쟁시대이자 지식기반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이에 걸맞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한 차원 다른 안전기술력을 확보하여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안전관계자의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안전관계자의 위상이 격하되고 역할과 영역이 대폭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안전이란 영역 자체가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모든 힘과 역량을 안전인의 권익보호와 신장, 이를 근본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임직원의 대부분이 당해분야의 기술사를 비롯한 1인 1자격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민간기술전문단체입니다. 그러나 날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현실에 보다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신기술과 신기법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재충전하여 국내 초유의 기술인력집단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이를 널리 활용하여 전 산업현장이 무재해 사업장이 이룩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비롯한 사업장에 자원 및 상담활동 등을 대폭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협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역할분담의 불명확성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중복 투자로 인해 국가적 경제손실과 인력낭비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뚜렷이 정립하여 민간재해예방전문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민간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21C는 나라간 국경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인터넷이 생활화되는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이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 나라 역시 본격적인 우주개발시대의 궤도에 진입함으로써 우리 협회 역시 세계화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선진외국의 선진안전기술과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에 보급함은 물론 후발개도국에도 우리의 축적된 안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국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각종 산업재해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될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즉,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산업안전·보건제도 선진화와 서비스 향상, 노·사 안전의식 함양, 공공-민간 재해예방기관간의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효율화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단순히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로 최상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기술적 협조, 정보제공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정보Media의 개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나 대회의 확대, 형식 및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협회에서 발간하는 「안전기술」이 국내 최고의 안전전문 기술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여러분 모두의 안전기술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상호간 공유되어야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우리 나라의 안전이 한 차원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습니다. 